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It lists TV programs such as '관철카메라 24시(재)', '채널A 아침뉴스', '다섯남자의 오마니', etc.

한국영화 강세 계속될까

‘은밀하게 위대하게’ 흥행 이어지나 관심

김수현 주연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할리우드 대작의 잇단 공세에도 연일 승승장구하고 있다. 강력한 경쟁작 '맨 오브 스틸'의 개봉으로 흥행 질주에 살짝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맨 오브 스틸'과 박스오피스 1위를 주고받으며 여전히 30% 안팎의 예매율과 스크린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을 기다리고 있어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흥행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스터 고'·'실국열차'·'감기' 개봉 앞무 = 아울러 대표적인 기대작 중 하나는 7월17일 개봉하는 '미스터 고'다. '미스터 고'는 야구하는 고릴라 '링링'과 15세 매니저 소녀 '웨이웨이'(쉬자오분)가 한국 프로야구단에 입단해 슈퍼스타가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를 연출한 김용화 감독이 200억 원이 넘는 제작비를 들여 국내 최초 전채 3D 촬영과 컴퓨터 그래픽(CG)·시각효과(VFX)로 가상 고릴라 캐릭터 제작을 시도한 대작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봉준호 감독의 글로벌 합작 블록버스터 '실국열차(사진)'는 8월1일 국내에서 처음 개봉한다. '실국열차'는 프랑스 SF만화를 원작으로 지구가 얼어붙은 뒤 생존자들을 싣고 끊임없이 달리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 군상의 다양한 모습을 그렸다.

CJ엔터테인먼트가 세계 시장을 겨냥해 국내 기업의 투자액으로는 최대 규모인 400억 원을 들인 대작인데 배우 송강호는 물론 크리스 에번스와 팀파 스윈튼 등이 출연한다.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바이러스 감염'을 소재로 다룬 영화 '감기'도 8월에 개봉한다.

김성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감기'는 호흡기로 감염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H5N1의 발병으로 폐쇄된 도시에 갇혀 버린 사람들의 치열한 사투를 그린 작품. 배우 장혁과 수애가 주연을 맡았다.

◇'톱스타급 남자 배우들의 귀환' = 개봉을 앞둔 영화들의 면면에서 무엇보다 반기운 점 중 하나는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이는 톱스타급 남자 배우들의 귀환이다.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톱스타 김수현을 비롯한 '꽃미남 간첩 3인방'으로 10~20대 팬들을 대거 끌어들이었다면 울어볼 개봉작들은 40대 안팎의 층으로 대표 남자 배우들을 내세운다.

먼저 '범죄와의 전쟁', '러브픽션', '베를린' 등에서 다양한 매력을 뽐낸 배우 하정우가 방송국 간판 앵커로 돌아온다. 하정우는 8월1일 개봉하는 '더 테러 라이브'에서 생방송 도중 "한강 마포대교를 폭파하겠다"는 신원미상 테러범의 협박 전화를 시작으로 숨 막히는 맛대결을 펼친다.

실경우와 정우성은 '감시자들'에서 한호

주,

이 준

호 등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감시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흔적조차 없

는 범죄 조직을 쫓는 감시 전문가들의 숨 막히는 추적을 그린 영화로, 7월4일 개봉한다.

특히 정우성은 이 영화에서 데뷔 이래 처음으로 악역에 도전해 형사반장 역의 실경우와 연기 대결을 벌인다. '살인의 추억', '괴물' 등에서 봉준호 감독과 작업해 온 송강호는 봉 감독의 신작 '실국열차'에서 꼬리 칸 반란군들이 앞쪽 칸으로 질주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보안설

계차 '남궁민수' 역을 맡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한국 영화는 아니지만 이병헌은 세 번째 할리우드 진출작인 '레드: 더 레전드'로 7월 국내 관객과 만난다. '레드: 더 레전드'는 25년 만에 재가동된 최강 살상 무기 '밤 그림자'를 가장 먼저 제거하기 위해 은퇴 후 10년 만에 다시 문신 CIA 요원 'R.E.D.'의 활약을 담은 액션 블록버스터. 이병헌은 극 중 집착 강한 킬러 '한' 역할을 맡았다. <연필뉴스>



판타지와 스릴러가 어우러져 “재미 쏙쏙~”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낚스코리아 조사 16.1%

SBS TV 수목극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기세가 사심적 않다.

14일 시청률 조사기관 낚스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전과를 탄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전국 기준 16.1%의 시청률로 자체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다른 조사기관인 TnmS에 의하면 이날 이 드라마의 시청률은 전국 기준 17.3%, 수도권 기준으로는 20.1%로 집계됐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화학 시질 역출한 누명예 학교를 그만둔 국선 변호사 장혜성(이보영)과 그 동료 차관우(윤상현)의 성장과 활약을 담은 작품.

언뜻 보면 일반적인 법정 드라마 같지만, 드라마는 다양한 장르를 품고 있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 소년 박수하(이중석)의 존재는 극에 판타지라는 새로운 '색깔'을 입혔다.

잔인무도한 악역 민준곡(정웅인)의 등장으로 드라마는 스릴러는 또 다른 '웃'을 입

는다. 광기 가득한 이 캐릭터는 정웅인의 노련한 연기력과 합쳐지며 극의 긴장감을 한껏 고조한다.

그중에서도 수하가 초능력 소년이라는 설정은 시청자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수하의 존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수하가 읽는 마음의 진실이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로 낙인 찍혀 자칫하면 살인미수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여고생의 억울함과 진실보다 승리를 집착하는 범조인의 속내는 수하를 통해 안방극장에 전달된다.

극 중 주인공 혜성을 연기하는 이보영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성공으로 '시청률 보증수표'라는 명성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해 동시시간대 '꽃미남'에서 출발했지만, 1등을 거머쥔 KBS '적도의 남자', 시청률 40%를 넘겨며 국민 드라마로 등극한 '내 딸 서영이' 등 그는 출연하는 작품마다 성공을 거뒀다. <연필뉴스>



<왼쪽부터 이중석, 이보영>

이 밖에도 촌스러운 헤어스타일과 동그런 안경을 쓰고 '말가짐'을 불사한 윤상현, 지난 2010년 SBS '시크릿 가든'으로 주목받은 이래 MBC '하이리! 짧은 다리의 역습', KBS '학교 2013' 등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성장한 이중석 등 주연 배우들의 호흡도 드라마를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연필뉴스>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including '06:00 건강취침', '06:10 한국기행', '06:30 나의 성공비결', etc.

EBS플러스1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1 and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00:00 기본과 특별한', '00:50 내신 6강', '01:40 " " "',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12 columns for the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Each column contains a brief horoscope for that sign, such as '36년생 크게 한숨 쉬 일이다.' for the Rat sign.

TV 하이라이트

채식만으로 건강을 지키는?



이영돈PD, 논리로 풀다(채널A TV·밤 11시) = 앞에는 약만이 실 길이다? 이들에게는 참으로 답답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먹

을 적당 바꿨더니 인생이 바뀐다. 약이 아닌 채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 고기, 생선, 세상의 모든 육식은 가라.

직접 입수 후 20년동안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바로 양산의 송화은씨.

그는 채식으로 몸을 이겨냈다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보고 이미 많은 암 환자들이 그를 찾고, 실제로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는 정말 채식으로 몸을 이겨냈고, 이제

'장애 극복' 님 부이치치의 도전



힐링캠프(SBS TV·밤 11시20분) = 님 부이치치는 해표지증으로 태어났 때부터 팔, 다리 없었다. 이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현재는 도전의 상징이자 희망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그는 전 세계 43개국을 돌아다니며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접 꿈과 희망을 전 해주는 세계적인 강연자이자, 미국 장애인 비영리 단체 '사지 없는 삶'(LIFE WITHOUT LIMBS) 대표로 활동 중이다.

행복전도사 님 부이치치가 외국인 최초로 힐링캠프에 출연한다. 님 부이치치는 인생 스토리와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님 부이치치는 MC들과 축구를 함께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한국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한국에서 첫 예능프로그램 출연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입담으로 MC들을 당황케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영산강 물길 따라 350리



한국기행(EBS TV·밤 9시30분) = 구성진 남도의 가락처럼 굽이굽이 호남의 산야를 드나드는 영산강 350리. 그 물길 속에 삶의 희로애락이 스며있다.

담양 가마골 웅소에서 시작한 물줄기는 나주, 무안, 영암 등을 거치며 몸집을 불린 후 바다로 흘러든다. 호남 사람들에게 영산강은 풍부한 산물을 내주는 생명의 강이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강이다.

350리 영산강 물길 따라 강이 풀어내는 삶의 이야기를 만나러 간다. 1부 '어릴진미, 전설의 맛을 찾아서' 편에서는 조금물 포랑참게, 뽕탄강 송어, 영산강 뱀어(빙어), 구진포 송어, 황룡강 잉어와 자라, 수문포 장어, 북바위 북어 등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어릴진미를 소개한다.

2부는 '그곳에 대나무 향기가 흐르네, 담양'을 주제로 18일 같은 시간에 방영된다.